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민수	직급	연구위원
	소속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성명	김엄지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 미국 MOU 협력기관인 동서문화재단(EWC)와 북태평양북극컨퍼런스 개최 - KMI-CKS 한국학연구소 업무회의 참석 - 북태평양북극컨퍼런스 개최 및 참석 - 북태평양북극컨퍼런스 운영위원회 참석 - KMI-EWC 협력 방안 논의 ○ 관련사업 - 「국제협력사업」(일반)-김민수 본부장 (사업기간 : 2023.01. ~ 2023.12.31.) -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김엄지 실장 (사업기간 : 2023.01. ~ 2023.12.31.) * 노르웨이 출장 인원 2인 → 1인으로 조정 * 김민수 본부장 → 원장대행으로 참석 예정					
출장기간	2023. 8. 15. ~ 2023. 8. 20.			출장지	미국 (하와이)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8.15(화)	인천(21:05) → 호놀룰루(10:55)	항공 이동			KE 053
		CKS 한국학연구소	KMI-CKS 한국학연구소 업무협의			차량이동
	8.16(수)	EWC	NPAC 개최 연구진 회의			차량이동
		Ala Moana Hotel	KMI-EWC 업무협의회의			차량이동
		Ala Moana Hotel	리셉션			차량이동
	8.17(목)	EWC	NPAC 개최(세션 1~4)			차량이동
	8.18(금)	EWC	NPAC 개최(세션 5~7)			차량이동
	8.19(토)	EWC	NPAC 운영위원회 미팅			차량이동
	8.20(일)	호놀룰루(13:05) → 인천(17:45, +1일) → 부산(20:40)	항공 이동			KE 054 KE 1421

출장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목적 달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와 EWC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 진행 - NPAC 기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협력 방안 논의 - 북극권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I-EWC 한국학연구소 협력 방안 논의 - KMI-EWC 북극 협력 방안 논의 - NPAC 미래 비전, 방향성, 개최 준비 등 논의 - NPAC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북극의 국제협력, 거버넌스, 과학, 원주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최근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북극권 전문가와 네트워킹 강화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NPAC 프로시딩(총서) 발간 - 북극협력주간에 NPAC 북극권 전문가 초청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태평양 북극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북극협력주간 인사초청 및 기능 확대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북극협력주간을 3대 북극국제행사로 격상 필요) - 해양수산부 극지팀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활용 방안 검토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4) 변화에 직면한 북극 공동체: 지역 및 글로벌 수준의 회복력, 적응성 및 거버넌스 · (세션5) 세계 변화와 북극경제 · (세션6) 거버넌스 · (세션7) 변화에 직면한 북극 공동체: 북극 경제와 지역 사회 복지 강화
수행결과	<p>□ (세션1) 현재 국제관계에 있어서 시스템간 갈등 혹은 냉전과 같은 이데올로기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다른 형태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세계화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음. 러우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새롭게 구축되었지만, 취약성은 더욱 제고되었음. 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압력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했음. 북극 예외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북극 안보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음. 2022년부터 발생한 지정학적 변화는 계속해서 북극지방 협력과 국제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NPAC의 이전 연구에서 입증된 것처럼 북극과 글로벌 사회간 연결은 기후,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강대국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파급 효과를 통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음. 지난 3년간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극에 대한 영향을 더욱 확대했고, 글로벌 환경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는 수년에 걸쳐 발생하여 경제와 지정학을 변화시켰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시아가 경제적 글로벌 중심지로 부상했으며, 자원 및 경제적 경쟁이 심화되었음. 또한, 군사안보적 경쟁이 강화되었으며, 민족주의 또한 증가했음. 기후 변화 가속화, 글로벌 오염 물질, 새로운 질병의 더 빈번한 도입 및 급속한 확산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약화되어 합의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임. 즉, 국제체계의 변화와 기후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음. 단극주의 혹은 양극주의에서 다극주의로 가는 야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정학적 파워게임이 북극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름. 따라서, 이를 컨셉화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대임. 인권, 기후변화 등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가 단위에 서의 결정은 실패했음. 러시아와 나토 간 비정부적 공간을 남겨둬야 함.</p> <p>□ (세션2) ICC, CAFF는 다종 보호 외 인권 보호 역시 연구 중이며 원주민들과의 협력 매카니즘을 통해 원주민 지식을 활용하고, 습득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하고 있음. 원주민 지식과 Local 지식은 같지 않음. 생태학적 지식과 원주민 지식을 구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나, 명확하지 않음. 원주민의 지식과 전통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WMO, IMO와 같은 국제기구에 원주민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계가 필요함. 원주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을 수 없음. 원주민 청년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북극이사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대화채널이 단정되었고, 이는 원주민단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음. 북극이사회와 별개로 원주민 단체는 활동이 가능함에 따라 재정적 지원, 연구 협력 등은 지속할 수 있음</p> <p>□ (세션3)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북극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목격하여 잘 알고 있음. 해안 침식, 해빙,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대규모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이는 자연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붕괴, 지역 사회의 붕괴, 자원 감소, 건강 문제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p> <p>□ (세션4) 북부/북극 지역의 원주민 및 주거 공동체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내부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인식, 정서 등을 파악했음. 또한 북극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제한할 필요도 없지만, 초점은 북태평양을 따라 있는 북쪽 고지대나 북극해에 면한 인근</p>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지역, 아마도 대략 크라스노야르스크 북부에서 북극해까지 누나부트 준주와 접해 있으며 북극권 아래 남쪽으로 확장되어 캄차카, 알래스카, 유콘 및 캐나다의 북서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세션5) 수산업을 제외하고 북극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의 특징은 자원임. 추가적인 개발과 자원 생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북극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희토류를 포함한 일부 금속 자원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북극에서의 경제적 발전과 원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김성진 장관) NPAC에서 다뤄온 북극 경제 이슈를 구분하면, 첫째, 북극항로, 둘째, 북극 에너지, 셋째, 친환경 기술 및 4차산업기술 등임. 우리나라는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음. 기본계획은 첫째, 극지 영역 탐사 확대, 둘째, 기후변화 대응, 셋째, 극지 산업 기반 국가 경제 기여, 넷째, 북극 국제협력 강화, 다섯째, 참여하고 소통하는 극지 활동 강화를 목표로 함.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첫째, KoARC를 통해 경제협력을 도모했고, 둘째, 친환경 쇠빙 LNG 운반선을 수출하고, 셋째, 8개국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넷째, 해운강국들과 북극항로 및 녹색 해운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오츠카 교수)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국제노선인 북극항로에 대한 활용이 어려워졌으며,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석유가스 수출용 외 국내 연안 화물을 처리하는 노선으로 활용하고 있음. 러시아 해역에 들어오지 않고 북극을 건널 수 있는 노선을 검토 중이나 고도화된 쇠빙기능을 가진 선박이 필요함. 북서항로와 관련해서 크루즈 및 연구선은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Mads)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 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함. 예를 들면, 항만 및 인프라의 경우 공공정책에서 안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노르웨이의 경우, 북극에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함. 기후변화와 과학의 그 밸런스와 관련해서는 케이블 설치를 그 예로 들 수 있음. 스마트 케이블을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과 저장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인터넷 연결까지 가능하도록 함.

- (Mitrova) 러시아는 아시아와 제3의 지역으로 석유 및 가스를 수출하고 있음. 그와 동시에 LNG의 경우, 유럽으로 수출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 석유시장의 upstream에 투자하는 아시아 국가는 없음. 푸틴 대통령은 NSR에 대한 권한을 로사톰에 부여했음. 이는 NSR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임. 북극을 군사화하고 있다는 것도 일정부분 사실임. 러시아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에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 상황에서 예산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장비나 장치가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음. 서방의 러시아 투자는 단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아시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 보스톡 오일이나 LNG-2 프로젝트의 경우, 계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에서의 자원 개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 (세션6) 북극 거버넌스는 집단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범과 규칙을 확립하는 복합체이며, 그 중 다수(IMO, UNCLOS, COPS)는 북극도 포괄하는 글로벌 권한을 갖고 있음. 북극이사회는 독점적이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협력체임.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극이사회 활동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뿐만 아니라 북극 해역에서의 조업, 운송, 수색 및 구조 조치 등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음. 북극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 그러나 이는 북극과 관련한 북극이사회, 국제협약, global, regional, local 등 다양한 레벨에서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예를 들어, 의도하지 않은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과 같은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등과 같은 협의가 필요함.</p> <p>□ (세션7)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자원 탐사, 조업 등 경제적 활동은 북극 원주민 공동체 및 원주민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원주민의 전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원주민 공동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 즉, 교육, 식량 안보, 건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의 향상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 캄차트카의 경우, 순록 목축업, 어업, 사냥, 물개 사냥, 채집 등의 전통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 특히 원주민 그룹인 '로도비에 옘시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0개 정도 존재함.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기후환경, 인구변화, 식량 안보임.</p>
업무④	8.19.(금) 오전 NPAC Steering Committee 미팅
수행계획	<p>□ NPAC 운영위원회 미팅</p> <p>- 참 석 자 : 김민수 본부장, 김엄지 실장, 김성진 (전)장관, Suzanne (Suzy) Puanani Vares-Lum 총장 외 NPAC 운영위원</p> <p>- 협의 내용</p> <p>· 2023년 NPAC과 연계한 세미나 공동 개최 등 협력 방안 협의</p>
수행결과	<p>□ NPAC은 아시아 및 기타 북극 파트너와 이해관계자 간의 연구 및 정책 대화를 위한 특별한 연결고리로서 북극 연구 및 정책 대화 생태계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확고한 입지를 확보했음. 그러나 북극지역에서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북극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이 되었음. 현재 기온 상승은 세계 평균의 3~5배에 달하며 계속 가속화되고 있음. 러우전쟁으로 북극지역에서의 국제적 긴장도 고조되었으며, 북극 국가들은 역외 국가과의 포럼을 통해 접촉을 유지하고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NPAC는 지속적이고 향상된 가치를 갖도록 변화해야 하며 반드시 변화해야 함. NPAC을 북극에서의 국제관계, 대화, 교육 및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목표와 방향의 틀을 제공해야 함</p> <p>□ (비전 및 미션) 2030년(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날짜)까지 NPAC의 비전은 북태평양과 연결된 최고의 기관 네트워크이자 영향력 있는 북극 연구, 교육, 포용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교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강화하는 것임. 태평양 지역, 북극 및 기타 북극 이해관계자는 북극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북태평양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북극의 관점을 강화하고 넓혀야 함. 즉, 포용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 행동 중심적 사고와 공통된 관심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 폭 넓은 관점에서의 북극의 일부로서, "북태평양 렌즈"라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상호작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p> <p>□ (컨소시엄) KMI와 EWC의 주도로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나, "컨소시엄"으로 확대하</p>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p>는 것을 제안함. 컨소시엄은 "아시아"와 "유럽 미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리적으로 북태평양 외부에 있지만 해당 지역에 상당한 연구, 교육 또는 정책 관심이 있는 기관에 개방되어야 함. 파트너십 수준과 비용 관련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단, 주요 파트너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권을 갖고, 모든 회원은 모든 NPAC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함. KMI의 주도 하에 아시아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개최) 지금까지 NPAC은 비공식적인 토론을 위해 소수의 참가자를 초청했음. 이는 NPAC이 Arctic Frontiers 및 Arctic Circle과 같은 대규모 전문 컨퍼런스와 구별되는 점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대화형 비공개 회의임. 이러한 특징을 유지하되, NPAC의 메시지를 관심 있는 대중에게 더 폭넓게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총서 발간) NPAC는 영향력과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SNS, 팟캐스트, 가상 패널 토론 또는 위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출판을 위한 단행본, 보고서, 논문 또는 기사를 준비하여 NPAC 프로시딩의 양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운영위원회) NPAC 운영위원회는 NPAC 이해관계자들의 비공식 자문기구로서 의제 설정, 새로운 문제 해결 및 평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왔음. 또한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왔음. 운영위원회의 세대교체와 절차를 공식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NPAC 운영위원회에 기관을 대표하는 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은 세대, 성별, 전문 지식 및 민족 다양성의 균형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함. 우리는 아시아인, 원주민, 젊은 전문가 및 실무자를 새로운 구성원으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제안함. □ (참여 확대)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포용성을 위해 NPAC 참여도 연령, 성별, 규율, 시민권, 원주민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어야 함. NPAC는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북극 원주민과 기타 주민들을 주도적이고 참여하는 역할로 참여시키기 위해 단호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고 확대되어야 함 □ (사무국 운영) 동서문화센터는 NPAC 사무국으로서 전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음. 매우 효율적이며, 잘 연결되어 있고, 혁신적이고, 전담하는 사무국이 필요함. 사무국은 또한 특히 회의 준비, 간행물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홍보 강화, 재정 지원 및 유치 등 NPAC의 활동을 지원해야 함. 자금 기반 구축은 (1) 컨소시엄 회원 기여, (2) 재단 (3) NPAC 목표 및 관심과 일치하는 정부 출처, (4) 북태평양-북극 문제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잠재적인 기업 및 민간 개인 기부자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
--	---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